

제일 기쁜 날

2013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느한 버섯공장을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종합지휘실과 원료처리장을 거쳐 재배장으로 가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먼저 1호재배실에 펼쳐진 흐뭇한 풍경앞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1호재배실의 키높은 덕대들에 층층으로 쌓아놓은 기질봉지들에서 팔뚝같은 흰곤봉버섯들이 가득 돌아난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이어 2호재배실에도 들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흐뭇한 광경에서 접도록 시선을 떼지 못하시며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버섯을 더 많이 안겨줄수 있게 된것이 그토록 기쁘시여 거듭거듭 자신의 심정을 터놓으시였다.

이날 일군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과 병사들이 자리잡고있음을 더욱 뜨겁게 새겨안았다.